

지스트, 영광군과 e-모빌리티·AI 융합 전문인력양성 위한 MoU 체결

- 미래혁신위원회(가칭) 통한 교육혁신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



▲ 지스트는 영광군과 24일(목) 영광군청에서 e-모빌리티·인공지능(AI) 융합 전문인력양성과 관련 산업 진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

(왼쪽부터) 영광군 김준성 군수, 지스트 김기선 총장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는 영광군(군수 김준성)과 e-모빌리티·인공지능(AI) 융합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협약식은 3월 24일(목) 지스트 김기선 총장과 영광군 김준성 군수 및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.

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마산단 내 산학융합시설 조성을 위한 (가칭)스마트 모빌리티 실증센터 개소 지원 및 지스트 모빌리티 영광 캠퍼스 설립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 계획 등이 포함됐다.

영광군은 e-모빌리티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스트는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센터와 특화대학원 설립 등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게 된다. 또한 상기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, 예산 확보 등 지스트와 영광군의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.

지스트 김기선 총장은 "인공지능 분야에 최첨단 기술과 장비를 보유한 지스트와 우리나라 대표 e-모빌리티 시티인 영광군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스마트 모빌리티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와 발전을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영광군 관계자는 “군의 미래 전략사업인 e-모빌리티 산업과 광주과학기술원의 우수한 교육·연구역량을 결합하여, 대한민국 최고의 e-모빌리티 인력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▲ (왼쪽부터)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, 지스트 이흥노 인공지능연구소장, 영광군 김준성 군수, 지스트 김기선 총장, 박지용 기획처장, 공득조 연구혁신센터 실장

한편, 양 기관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형자동차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연구시설을 조성하여 R&D—인력양성—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, e-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.